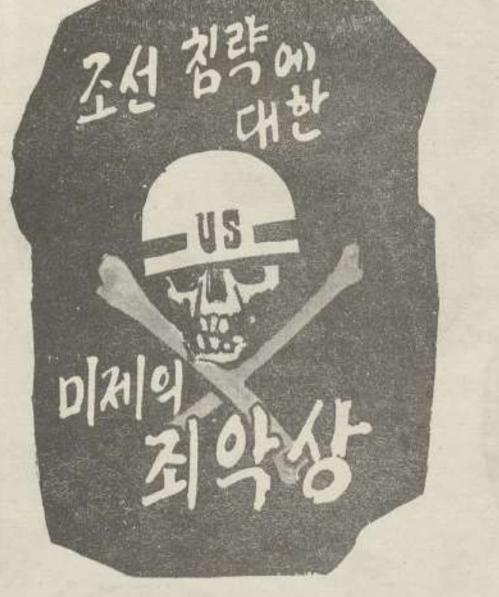
력사의 교훈

6.25— 조선 인민은 이 날을 맞이할 때 마다 원쑤 미제에 대한 치 솟는 격분과 저주, 적개심과 증오심을 더욱 높인다. 만일 미 제국주의자들이 지난 전쟁에서 교훈을 찾지 않고 무모한 도발 책동을 감행한다면 더욱 큰 패배를 면치 못하리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룡 종호 그림

화살

1960년 6월 상반호 (127)



력사의 교훈

오 홍택

호루쑈브 수상이 파리에서 진행한 기자 회견에서 한 담화 가운데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내가 자라난 고장 사람들은 비둘기'장으로 기여 드는 고양이를 잡으면 그 꼬리를 붙잡고, 비둘기'장에서 꺼내여 땅'바닥에 태질하군 한다. 그래야 고양이는 진짜 혼'살이 나는 것이다》.

미국 침략 계층이 쏘련에 간첩 비행기를 들여 보냈다가 바로 비둘기'장에든 고양이 모양으로 붙잡혀 미국은 개 망신을 당했다.

그런데 문제는 미제가 망신은 망신으로 알고 혼'살이 날줄 아는 그런 정상적 사고가 없는데 있다.

고양이의 경우에는 한번 혼'살이 나면 다시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못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그러나 미국 침략 계층의 경우는 망신도 모르며 도적질하다가 혼'살이 나고도 뻔뻔스럽게 행동하고 있다.

그것은 이번 간첩 비행기 사건을 저지르고도 오히려 저들이 《정당》하다고 떠들면서 끝내 수뇌자 회의까지 좌절시키게 한데서도 로골적으로 나타났다.

미제국주의자들이 혼'살이 난 것은 물론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다른 실례는 다 그만 두고 우리 조선에서만도 몇번이나 개망신을 당했는가!

이 양키들이 조선 인민을 굴복시키겠다고 10년전 6월 25일에 우리 나라에서 전쟁을 도발했다.

미군만이 아니라 앞잡이 나라 군대까지 총동원했다. 군대만 아니라 《페스트 장군》(세균 무기)까지 동원했다. 전선 뿐만 아니라 후방 도시 주민 지대와 농촌 그리고 지어는 병원에까지 나팜탄을 퍼 부었다.

그런데 어떻게 되였는가. 전쟁을 일으키든 자리에서 조선 인민 앞에 무릎을 꿇고 정전 협정에 도장을 찍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 자신들이 인정한 바와 같이 미국 력사에서 이렇게 망신을 당해 본 일이 없었다.

고양이는 이만치 호되게 얻어 맞았으면 다시는 찍소리를 못할 것이다.

그런데 미국 침략 계층은 어제'날에 당한 혼'살에서 교훈을 찾지 않고 있다.

이 양키들은 조선에서 또다시 전쟁을 일궈 보자고 리 승만을 추겨 반공 나발을 불어대면서 철없이 날뛰였다.

남조선 인민들의 가난한 호주머니를 털어 전쟁 투전판에 송두리채 들어민 결과 남조선은 문'자 그대로 인간 생지옥으로 되였다. 인민들 속에서는 《못살겠다》는 아우성만 높아 갔는데 미제는 리 승만을 조종하여 다 깨진 《북진》 나발만 불어 댔다.

결과 어떻게 되였는가,

남조선 인민들은 리 승만의 동상 목을 쇠줄로 묶어 서울 거리로 끌고 다니면서 대시위를 하였으며 살인 장군 맥아더의 동상에까지 접어 들었다.

리 승만은 어떻게나 질겁했든지 하수도구멍에 꽁지를 틀어 박고 《대통령》 감투를 벗었다.

이에 대해서 미제 강도들은 리 승만이란 이름과 미국 침략 계층이라는 말이 다르다고 하여 저들이 당한 망신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공식을 푼다. 《리 승만=미제 침략 계층》

이렇게 되면 양키들은 응당 교훈을 찾아야 할 것이다. 헌데 양키들은 나가 떨어진 리 승만 대신에 허 정을 내 놓고 또 전쟁 투전판을 벌리려고 책동해 나서고 있다.

투전'군이 망해가는 판에서는 환장하는 법이 종종 있다. 이렇게 환장하게 되면 고양이가 가지는 《리성》보다도 못한 것이다. 미국 같은 데서는 투전판에서 망조가 들면 제 녀편네까지 잡히고 나 앉는 수가 종종 있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미제 침략 계층에게 작년에 대동강에서 까낸 얼음덩이를 보낼 용이가 있다. 환장한 머리에 얹고 세상 돌아 가는 형편을 다시 한번 살펴 보도록…그렇게까지 못한다면 비둘기'장에 들었다가 혼'살이 난 고양이 정도라도 생각하도록…

쏘련에서 띄운 우주 비행선이 지구 우를 돌고 있고 로켓트 당번이 쏘련 령공에 들어 온, 2만 메터나 높이 뜬 미국 간첩 비행기를 단발에 떨어뜨린 사실, 조선의 북쪽 땅에서 천리마 진군이 힘차게 계속되는 사실, 남조선에서 미군의 철거를 요구하여 거센 투쟁이 일어 나고 있는 사실 등등,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미제 침략 계층의 확장한 《랭전》 계획이 총 파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아야 한다.

만일 지금이라도 교훈을 찾지 않는다면 히틀러나 뭇소리니, 도죠의 운명 처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것은 준엄한 력사의 교훈이다.

1. 미제는 백년전부터 조선을 침략하기 시작하였다. 1866년 미국 해적선《샤만호》의 평양 침입으로부터 시작하여 1868년 미국 강도단의 덕산 남연군묘 도굴 사건, 1871년 미국 《조선 원정 함대》의 대거 침습, 1882년 불평등 조약인 《한미 수호 통상 조약》의 강요 등으로 미제의 조선 침략은 계속 감행되였다.

2. 일본 제국주의가 패망되자 미 제국주의는 《해방자》로 자칭하면서 해방된 남조선에 상륙하여 조선에 대한 자기의 오랜 침략적 야망을 실현하는 길에 들어 섰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자기의 노복으로 길러 낸 리 승만을 남조선에 데려 왔으며 인민에게 버림 받은 친일파 민족 반역자들을 규합하여 반동 집단을 형성하고 조선의 민주주의적 통일을 방해하였다.

3. 미제는 남조선에 대한 자기의 침략 정책을 대행하는 괴뢰 통치 기구로서 또한 조선의 민족 분렬을 영구화하기 위한 책동으로서 유엔의 간판을 도용하여 리 승만 괴뢰 정권을 비법적으로 날조하였다. 또한 북조선의 혁명적 민주 기지가 날로 공고하게 되는데 겁을 먹은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은 남조선 인민들을 더욱 탄압하였으며 북반부를 반대하는 전쟁 준비를 적극화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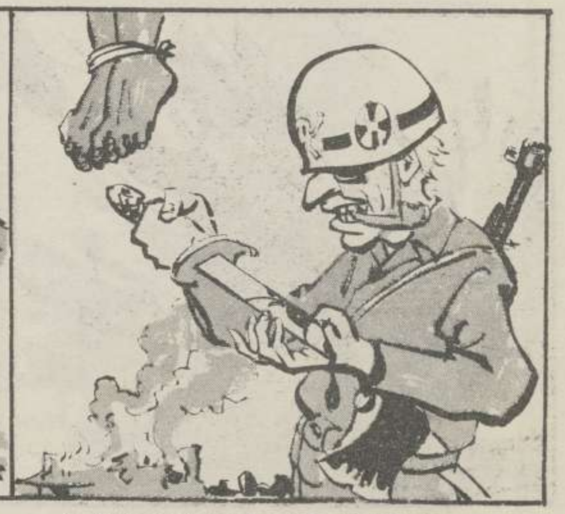
4.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수차에 걸쳐 조국의 평화적 통일 방안을 제기하였으나
미 제국주의자들은 1950년 6월 25일 전 조선을 무력으로 강점할 목적으로 리 승만 도당으로 하여금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반대하는 무력 침공을 도발케 하고 뒤'이여 자기의 륙해 공군을 투입하여 전면적인 침략 전쟁을 개시하였다.

이 철갑모가 보이지 않느냐?!

홍 종호 그림

5. 우리 인민 군대는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기 위하여 불의에 배신적 침공을 개시한 적군을 반대하는 투쟁에 나섰다. 놈들에 의하여 전쟁이 개시되자 조선 인민은 《모든 것은 전쟁 승리를 위하여》라는 조선 로동당의 호소를 받들고 원수들을 쳐부시기 위하여 한결 같이 일어 섰다.

6 조선 인민군의 영웅적 투쟁에 의하여 참패를 거듭한 미 제국주의자들은 추락된 자기 위신을 만회하며 자기의 침략적 목적을 달성해 보려고 태평양 방면의 륙해 공군과 지중해 함대의 일부와 추종 국가 군대까지 동원하여 대규모적인 총공격을 감행하였다.



7. 인민 군대의 일시적 후퇴와 관련하여 적들은 북반부의 많은 지역을 강점하고 일찌기 인류 력사에서 유례 없는 야수적 만행을 감행하였다.
우리는 원한에 가득찬 신천군의 35,000 여명의 대 학살 사건을 비롯하여 무수한 애국자 부녀자들과 어린 이들을 도처에서 학살한 것을 잊지 않고 있다.

조선 인민의 목소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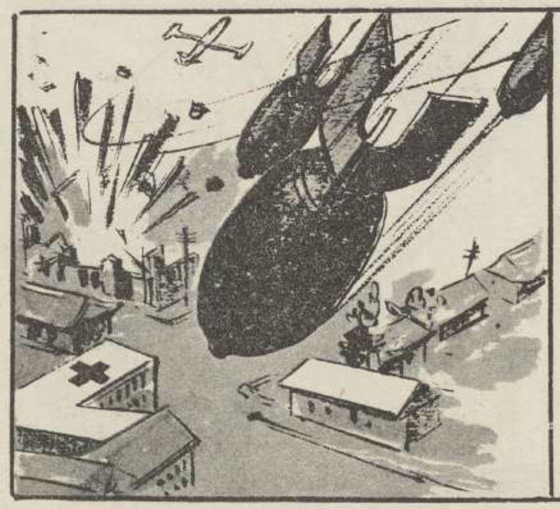
미군은 남조선에서 당장 물러가라!

세계 사회 여론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조선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면서 남조선에 오늘과 같은 참화를 가져 오게 한 미군의 즉시 철거를 견결히 요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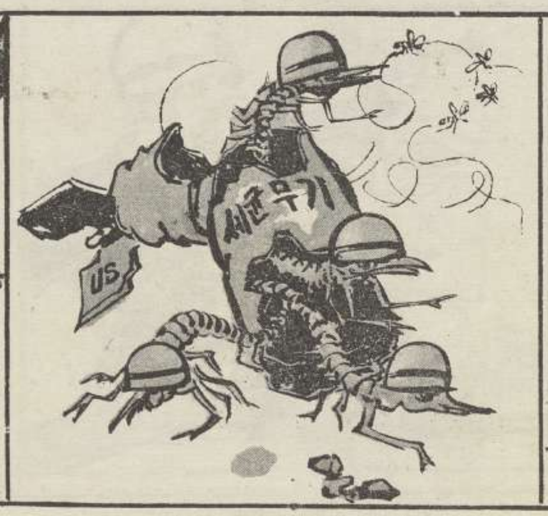
송 용남 그림

박 승히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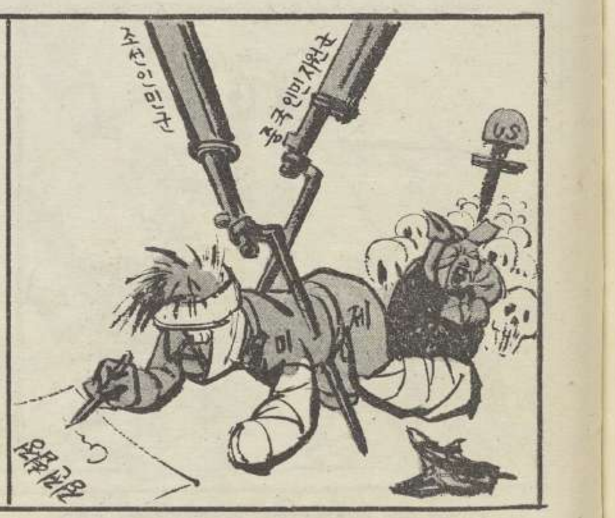
전 세계 인민들의 목소리로 울려 퍼졌다.



8. 미제 침략자들은 야수적인 무차별 폭격을 감행하여 우리의 도시와 농촌을 페허로 만들었다. 미제 공중 비적의 야수적 무차별 폭격에 의하여 공화국 북반부에서 8700 개소의 공장, 60 만 호의 주택, 5000 여 개의 병원 및 진료소를 비롯하여 극장과 영화관 등 수천개의 문화 기관들이 파괴되었다.



9. 적들은 국제적으로 규정된 전쟁 법규들을 란폭하게 위반하고 우리의 전선과 후방에 대하여 대규모적으로 세균 무기와 화학 무기까지 사용하여 우리의 부모 형제들을 야수적으로 살륙하였다.



10. 조선 인민군은 중국 인민 지원군과의 협동 작전하에 원수들의 무력 침공을 철저히 격파 분쇄하였다. 이리하여 세계에서 제일 세다고 뽐내던 미국 놈들과 그와 한편이 되여 싸우던 침략자들은 1953년 7월 27일 드디여 조선 인민 앞에 무릎을 꿇고 정전 협정에 조인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영전

신 흥순

△ 경찰서장실

(연회가 시작된다. 서장 옆에는 기생도 끼여 앉았다)

경무 주임 (일어 나서) 다 아시다 싶이 우리 서장님은 이번 《파도 내각》의 특별 인사 발령에 의해서 《중앙 치안국 경무과장》으로 영전하시게 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송별연을 배설하였는데 지금 난국이 지속되는 조건 하에서 료리집 같은데서 성대히 하지 못하게 된 것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서장 인원이 적으니까 오히려 오붓허군그래

경무 주임 음식은 많이 준비되였으니까 얼마든지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서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앉는다)

기생 아니 여긴 안전한가요? 난 원 요즘 이런델 오면 마음이 오마조마 허드라.

경무주임 경찰서장실인데 뭘 그래? 접은…

서장 (일어 나서) 에— 내가 서장 직에 복무하는 동안 제군들의 적극적인 협력 아래 큰 허물 없이 이 자리를 떠나게 된 것을 무한히 기쁘게 생각하는 바요. 떠나면서 한 가지 부탁할 것은 …

기생 연설 그만 하시구 어서 잡수십시다.

경무주임 버릇 없이 (눈을 흘긴다)

서장 모조록 새로 오신 서장을 받들어 전초에 선 경찰의 중책을 다해 주기 바라는 바요 이상! (앉는다)

경무주임 자 그럼 서장님의 영전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다 같이 축배를 듭시다.

△ 갑자기 유리창이 깨지며 밖에서 와— 하고 몰려 오는 군중들의 소리 들린다.

서장 아니 경비를 단단히 세웠다는게 이 모양이야?

소리 《시위 군중에게 발포 명령을 내린 서장놈을 잡아 내라!》

기생 아유 전기불까지 꺼지네,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깐

△ 군중들의 소리, 창문 부서지는 소리, 접시 깨지는 소리, 호각 소리, 아우성 소리 함께 어울려 수라장이 되였다.

△ 경찰 서장의 집

안해 아니 모자두 없이 웬 일이요? 어디서 넘어졌소? 아니 웬 약주를 이렇게 많이 자시군…

서장 술이 다 뭐요, 송별회지 뭔지 술 한잔 못마시구…그놈들이 인젠 걸핏하면 시위야

안해 원 이런 변 좀 봤나?

경무 주임 (달려와서) 서장님 죄송합니다. 인제 겨우 진압시켰습니다. 그리구 송별회는 래일 저녁에 다시…

서장 래일? 난 이 지방놈들을 한 시도 더 보구 있기 싫네

안해 이사'짐까지 다 부쳤는데 뭘허러 여기 있겠소? 래일 아침 차로 가야지

경무 주임 제가 술을 한병 들고 왔습니다. (한잔 따라 주며) 기분은 나쁘시겠지만 한잔

서장 에 속상해! (마신다) 카! 송별휜 잘 허는군

경무 주임 죄송합니다. 서장님 중앙에 올라가시면 저를 잊지 말아 주십쇼. 서장님은 특히 허 정 각하 허구는 전부터 막역한 사이구 내무부 장관님과도 각별한 사이시니까…

서장 념려 말어

경무 주임 참 저 제가 서장님의 도장을 하나 새겨 왔습니다. 맘에 드실런지요?(도장을 준다)

서장 음 수정 도장! 큼직헌게 위신 있구먼! 그래 《중앙》에 올라가면 이만은 해야 해

순경 (급히 와서)서장님! 《중앙》에서 전보가 왔습니다. (주고 나간다)

서장 (받아 보고) 인사 발령이로구먼 《사무처리상 치안국 경무과장을 면직함 》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셈이야? 부임도 하기 전에 면직이라니?

경무 주임 각도에 경무국장 자리가 많이 비었으니까 아마 그리로 배치하려는가 보죠

△ 전화 벨이 울린다.

서장 (수화기를 들고) 나 서장이야 네? 내무부 장관이세요? 네 방금 받았습니다. 네? 이 지방에서 항의가 올라가구 그리구 서울 사회계에서도 물의가 비등해요? 시위 군중에게 발포 명령을 허구 학살한 장본인을 등용하는 건 뭐냐? 그 리유를 밝혀라! 《내무부 장관》의 처사가 의심스럽다! 인사 발령을 취소해라! 네 그래서요? 장관님의 립장이 곤난해서 그렇게 한거라구요…아이구 전 그럼 어떡허랍니까? 예, 좀 기다리면 인차 승급시켜 다른 지방으로 보내 주시겠다구요

△ 이때 갑자기 군중들이 몰려 왔다.

시민 이놈들 손 들어라!

서장 (손을 들고)아이 살려 줍쇼

경무 주임 전 죄가 없습니다.

시민 죄가 없어? 군중들 헌테 물어 보자! 어서 나가자! (서장에게) 너 영전이라는게 뭔지 아니? 서장놈이 지옥으로 가는게 영전이다. 알겠니?

△ 군중들 두 놈을 앞 세우고 나간다.

11. 미제와 그의 주구들은 지난 전쟁에서 교훈을 찾으려 하지 않고 정전 협정을 란폭하게 파피 유린하면서 군사력을 계속 증강하는 한편 공화국 북반부에 대한 간첩 파괴 행동을 감행하고 있으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조선 인 민의 념원을 전쟁 도발 책동으로 대답하고 있다.

12. 미제의 가혹한 식민지 략탈과 군사 기지화 정책으로 인한 남조선의 실태를 보라! 남조선에서의 공업 총생산액은 일제 말기에 비하여 절반으로 축감되였으며 1958년 11월 초에 휴업 및 운휴 상태에 있는 기업체는 전체 기업체의 75%에 달하고 있다.

13. 《곡창》이라고 불리우던 남조선 농촌에서는 농토가 황폐화되고 있다. 농경지는 미국의 군사 기지로 빼앗기고 있다. 남조선 농촌에서는 지금 경지 면적이 일제 시대에 비하여 60만 정보가 축소되고 알곡 총생산고는 40%나 감소되였다.

최 영근 그림

불안한 나날

5월 3일이다. 계엄 사령관이 급한 걸음으로 허 정의 방으로 뛰여 들어 왔다.

《또 학생들이 들고 일어 났습니다. 〈4,19 학생 데모의 피를 더럽히지 말고 민의원은 즉각 물러 가라〉고 앉아 버티는 것을 두개 소대를 동원시켜서 겨우…》

《그래 해산시켰단 말이지…?》

허 정은 숨을 내쉬는데 송 요찬이 또 아뢰였다.

《리리에서는 고등 학교 학생들이 민주당도 자유당도 다 지지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민주당 사무실을 습격했습니다》

《그럼 우리 파도 정부를 지지한단 말이겠지?》

《아니 올시다. 우리 파도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부산 녀자 고등 학교 학생들은 비를 맞으면서까지 〈썩은 국회 해산하라〉구 하며 시위를 해서 지금 땅크 장갑차 무장 헌병을 동원시켜서…》

《빨리 부산 지대에선 보도를 하지 못하게 했, 그 소식이 퍼졌다간 또 4,19 사건 같은…》

허 정은 몸서리가 났다.

《각하 이번에도 자유와 민주주의를 달라구 들구 일어 났는데 그러다 또…》

《그렇다구 그들에게 자유를 줄 순 없어, 공산 5 렬이란 감투를 씌워서 탄압하란 말이야.》

그때 허 정의 비서가 뛰여 들어 오며 《부산 고등 학교 학생들이 〈썩은 국회 물러가라〉라는 프랑카드를 들고 국회를 해산시키겠다고 서울로 올라 오고 있답니다.》

《제길! 계엄 사령관! 뭘 하느냐?!》

《다른 데서도 자꾸 들고 일어 납니다.》

《모두 우리를 반대한단 말인가? 아이구》

그때 비서가 문건을 들고 들어 왔다.

《각하! 허터 장관의!…》

《허터 장관의?!》

허 정은 당황한 얼굴이 되며 벌떡 일어섰다. (탄압을 잘못한다는 질책이 아닌가?)

《우리 파도 정부를 협조하겠다는…》

그러자 허 정은 갑자기 기운이 나서 미친 듯이 떠버렸다.

《미국이 있는 한 우린 두려울 게 없소!》

《각하! 리 대통령 때도 미국의 방조야 없었습니까》

《리 대통령은 너무 우둔했기 때문이야 정치라는 건 회유, 기만, 무마가 필요한거야. 파쑈 정체를 비단 보자기로 싸야 한다는 것! 이 점에서 리 대통령은 실책했어, 그래 이번 〈개헌안〉에서는 파쑈 정체를 〈질서 유지〉, 〈공공 복리〉란 그럴듯한 비단 보자기로 슬쩍 감쌌단 말야 하하하》

《그러나 백성들이 어디 속습니까, 달라진 건 아무 것도 없다고 〈국회 해산하라〉〈민의원 총 사퇴하라〉하구 도처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걸 보십시오》

《그러나 미국이 있는 한 두려울게 없소》

허 정은 재차 부르짖었다. 그때 〈국방 장관〉이 뛰여 들어 오며 《이젠 또 부산, 인천, 금성, 서울에서 로동자들이 들고 일어 납니다》

《아니 그놈들이 뭐라고 하면서 말썽이야?》

《인천 부두 로동자들은 〈우리의 권리는 우리들 자신의 궐기로서만 쟁취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시위를 하는데 그 기세가…》

《리 승만을 꺼꾸러 뜨리더니…》

《그리구 부산항 하역 작업 로무자들은 제법 〈십장 제도 폐지하고 착취 행위를 일소하라〉란 프랑카드를 들고 시위를…》

《뭐, 착취 행위 일소? 틀림 없이 빨갱이가 조종하구 있어! 이러다간… 국방 장관! 위태롭소. 빨리 현지로!》

그런데 숨도 돌리기 전에 《내무부 장관》이 또 뛰여 들어 오면서

《각하! 경상남도에서 사건이…》

《또 사건이?》

《예, 거창군 농민 70 여명이 그전 학살 사건의 공모자인 전 면장을 불태워서…》

《불태워서?… 에—이 그 주모자놈은… 잡아서 오찰을 해 처단했.》

그러나 《내무부 장관》은 송구한 표정으로

《30 여명을 체포해서 문초했는데 아 그놈이 저마다 자기가 주모자라고 나서면서 대드는데 자칫하다간 대중적 폭동으로 넘어갈 위험이…》

《대중적 폭동? 그럼 왜 빨리 석방하지 않구 그랬어!》

《그런데 그전 학살 사건의 원 주모자까지 처단하라고 요구해 나섭니다.》

허 정은 치가 부들부들 떨렸다. 그 자신도 얼마나 많은 인민들을 《공산 5 렬》이란 감투를 씌워 무참히 학살했던가! 그의 눈앞에는 면장처럼 인민들 한테 불타 죽는 자기의 가련한 꼴이 얼른 거렸다.

《아이구 못해 먹겠다!》

그는 침대에 가 엎으러졌다. 리 운봉

14. 미제와 괴뢰 도당의 학정은 남조선의 민족 경제를 송두리채 파탄시키고 농촌 경리를 황폐화 시킴으로써 660 만에 달하는 실업 대중과 300 만명을 헤아리는 상시적인 절량 농민들과 수십만명의 류랑 고아들로 거리와 마을을 뒤덮게 하였다.

15. 남조선 학교는 병사로 빼앗기고 학생들은 학장에서 쫓겨 나고 있으며 청소년들은 《공납금》을 물지 못해 축출되고 있으며 배움의 길을 잃고 있다.

16. 남조선에서는 부패한 미국식 생활 양식과 인간 증오의 사상이 류포되고 있다. 남조선에서 우리 인민의 아름다운 풍습과 고귀한 문화적 유산들은 매일 매시각마다 미제 침략 군대의 군화 밑에 짓밟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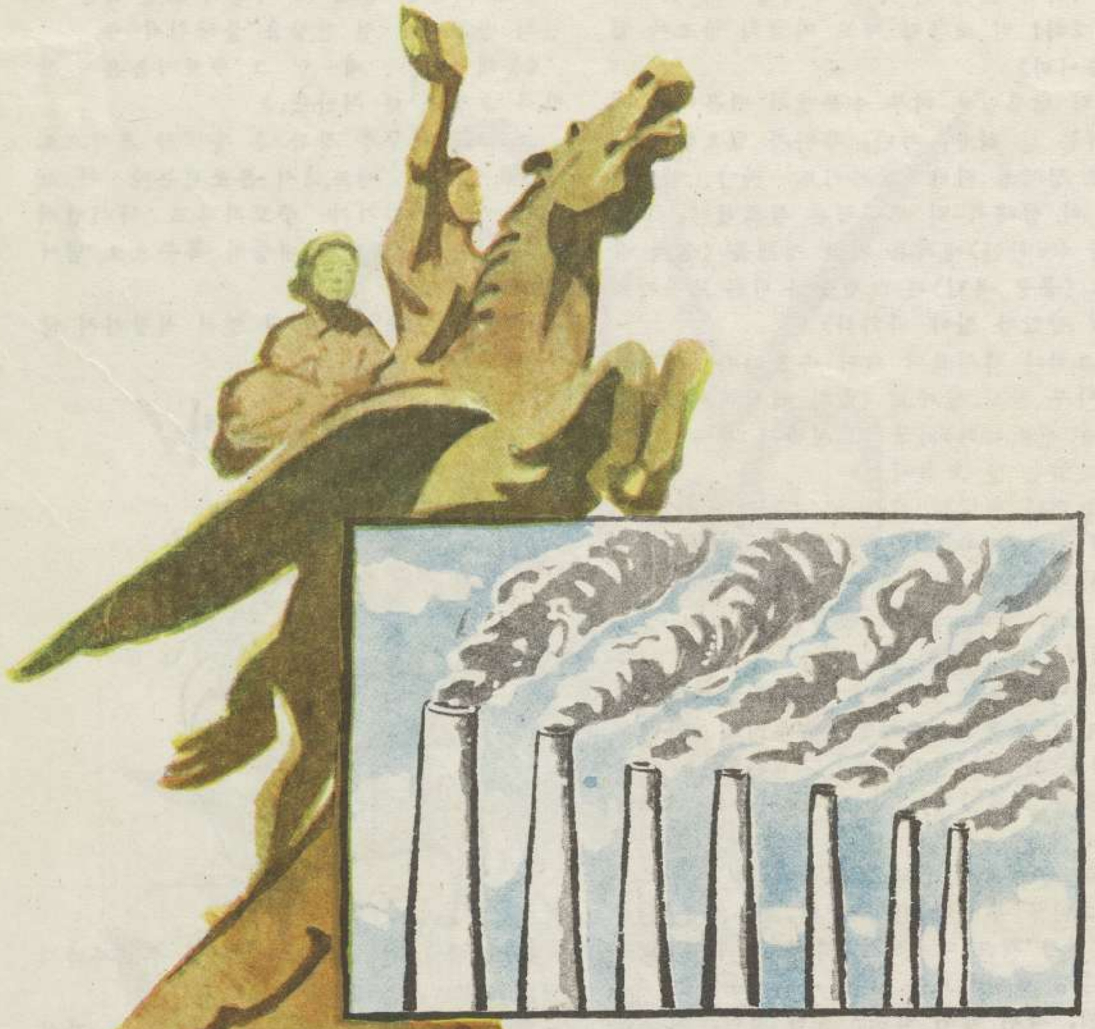
17. 오늘 미제 살인귀들은 남조선 천지를 오만하게 횡행하면서 무고한 인민들에게 야만적인 악형을 가하며 부녀자들을 능욕하며 심심풀이로서 조선 인민을 살륙하는 만행을 감행하고 있다.

18. 미제 침략자들과 리 승만 도배는 남조선 인민들의 초보적인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마저 유린하고 있으며 인민의 모든 지향을 말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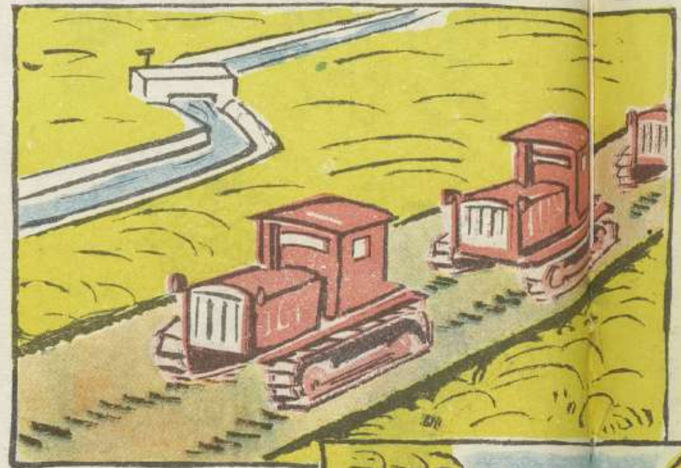
19. 오늘 미 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을 계속 강점하고 있으며 괴뢰 통치 기구가 계속 존속하는 한 남조선 인민들은 자유로울 수 없으며 도탄에 빠진 생활 처지를 조금도 개변시킬 수 없다. 조선 인민들은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 주위에 철석 같이 단결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미제 침략 군대의 즉시 철거를 요구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투쟁하자!

판이한 두 현상

북 반 부



수풀로 일떠선 굴뚝에
잠시도 연기 그칠새 있으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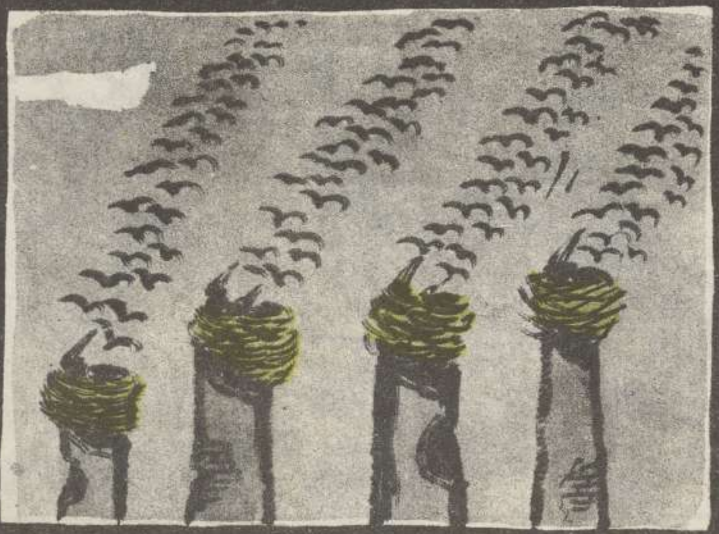


관개수 철철,
철마 소리 와릉 와릉,
세세 년년 풍년가
드높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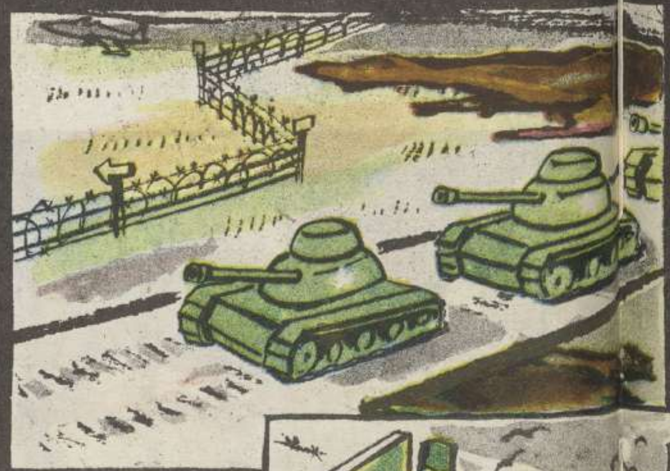
찬란한 민족 예술

꽃봉오리들 마음껏 배우며
무럭 무럭 자란다

남 반 부



허물어진 굴뚝은 오직
까마귀들의 환심을 쌀 뿐



농토가 미제의
군사 기지로 되니

리농민들의
원한 소리
하늘을 찌른다

빼앗긴 민족 예술

배우기는 커녕 쓰레기통
신세도 면치 못한다

허 능택 그림

새 몽둥이

리 철희

깽의 썩은 몽둥이가 부러져 나갔다. 미국 강도는 아쉬움 없이 새 몽둥이를 집어 들었다. 새 몽둥이도 전의 것처럼 유. 에쓰 제품이다. 참나무 몽둥이건 스텐레스 몽둥이건 사람 잡는 도구인 바에야 차이가 있겠는가.

새 몽둥이—허 정은 닥치는 대로 갈리기 시작하였다. 내려 칠 때마다 《질서 유지》 《치안 확보》 소리를 쉭쉭 내며 피를 뿌린다. 새 몽둥이는 눈이 돌 지경으로 바쁘다.

몽둥이가 수화기를 들었다. 미친개 눈처럼 눈이 희번덕 거린다.

《헬로우… 부산? 정세가 어때? 점점 험악해져서 무정부 상태라? 주저 말고 내려 치란 말이야! 뭐? 〈평화적 조국 통일?〉 그런 구호를 웨치는 놈은 내려 쳐야 해! 〈부정 선거 책임자 처벌〉이라? 그런 주장을 하는 놈도 쳐야 해! 무슨 주장이고 입을 벌리는 놈은 모조리 까란 말이야 〈간첩 5렬〉 〈공산 분자〉라는 주문을 외우면서 내려 치란 말이야, 곳곳에서 몽둥이가 춤을 추며 피를 먹어야 한다—이것이 나의 시정 방침이야》

이번에는 고정 전화에서 소리가 들렸다. 《대전, 대전입니다. 계엄 사무소장 윤이 아뢥니다. 지금 대전시에서는 학생들의 평화적 데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충돌과 피해는 쌍방에 없습니다. 지시를 기다립니다》

허 정은 오뚝이 처럼 벌떡 일어 나며 웨쳤다.

《일체 데모는 제지하겠다고 선포할 것, 그리고 주모자는 검거하고 학교는 페쇄할 것! 그 다음엔 별일 없어?》

《공원에 몇몇 로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허! 그놈들이 또 데모를 할려는게 아니야? 공원을 곧 페쇄하고 로인들을 해산시켰!》

허 정은 대단히 바쁘다. 더우기 상전인—맥코노이 대사가 옆에 앉아 계시지 않는가, 솜씨를 뵈여 드려야지

이번에는 자신이 수화기를 들더니 계엄 사령부를 불렀다.

《계엄 사령부요? 〈혁신 련맹〉이니 뭐니 하는건 해산시켰소? 앙? 선언문, 결의문, 강령만 검토했다구? 당장 1 개 소대 병력을 동원해 강제 해산시키오! 항거하면 〈공산 분자〉〈공산 5 렬〉 감투를 막 들씌우고 란장을 치란 말이야 〈내각 책임제〉나 〈개헌〉을 반대하는 놈들도 덮어 놓고 갈겨! 내가 리 승만 대통령으로부터 만세 일계의 몽둥이를 계승한 사람이란걸 명심하란 말이야》

이번에는 녹크도 없이 문이 열리더니 4~5 명의 졸도들이 들어 닥쳤다.

《각하! 부산의 폭동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어중이 떠중이들이 제각끔 보고하는데 《군정 때도 몽둥이, 한민당 때도 몽둥이, 자유당 때도 몽둥이였지만 허 정의 몽둥이 맛은 특별하다는 걸 알게 해! 〈내각 책임제〉 〈개헌〉을 반대하는 보도 기관들은 다 페쇄해 버렸!

첫째로도 몽둥이요 둘째로도 몽둥이요 세째로도 몽둥이—이것이 나의 시정 방침이란 말이야 잘 조기는 자만이 등용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해! 몽둥이야말로 미 합중국의 선진적이며 현대적인 통치 방법이란 말이야》하고 허 정은 거품을 물며 쾅! 책상을 쳤다. 백림 함락 전야의 히틀러 처럼 그는 한참 발작하였다.

어중이 떠중이들이 허 정의 훈시를 듣고 사라지자 오랫만에 실내는 좀 조용해졌다.

안락 의자에서 졸며 이 모든 발작을 듣고 있던 맥코노이가 일어 서서 출입문으로 가면서 말했다.

《친애하는 세콘드 몽둥이! 당신 성능 괜찮습네다. 리 승만 못지 않소! 전도 유망하오. 유. 에쓰 제품 나쁠리 없지요 그 성능 최대한 발휘해서 난국을 극복해야 합네다》

× ×

허나 남조선 인민들은 8천명의 피'값을 받아 내며 낡은 몽둥이건 새 몽둥이건 유. 에쓰 몽둥이들을 죄다 꺾어 남해에 처넣고 새 제도를 세우고야 말 것이다. 몽둥이를 무서워할 조선 사람은 없다.

악법의 출처

홍 종호 그림

살인귀의 가면

미 제국주의자들은 허 정 일당의 《과도 정권》을 조작하여 껍데기만 갈아 버리고 알속은 그대로 보존해 두는 기만 술책으로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 기세를 무마해 보려고 애쓰면서 한편 자기들의 앞잡이들을 통하여 항쟁에 궐기한 남조선 인민들에 대한 류혈적 탄압에 광분하고 있다.

몽둥이를 꽃나무로 보이게 할 수는없다.

미제의 조종하에 허 정 일당은《국정 쇄신》이니 개혁이니 하면서 남조선 인민들을 회유 기만하고 있다.

송 용남 그림

얼빠진 자들의 망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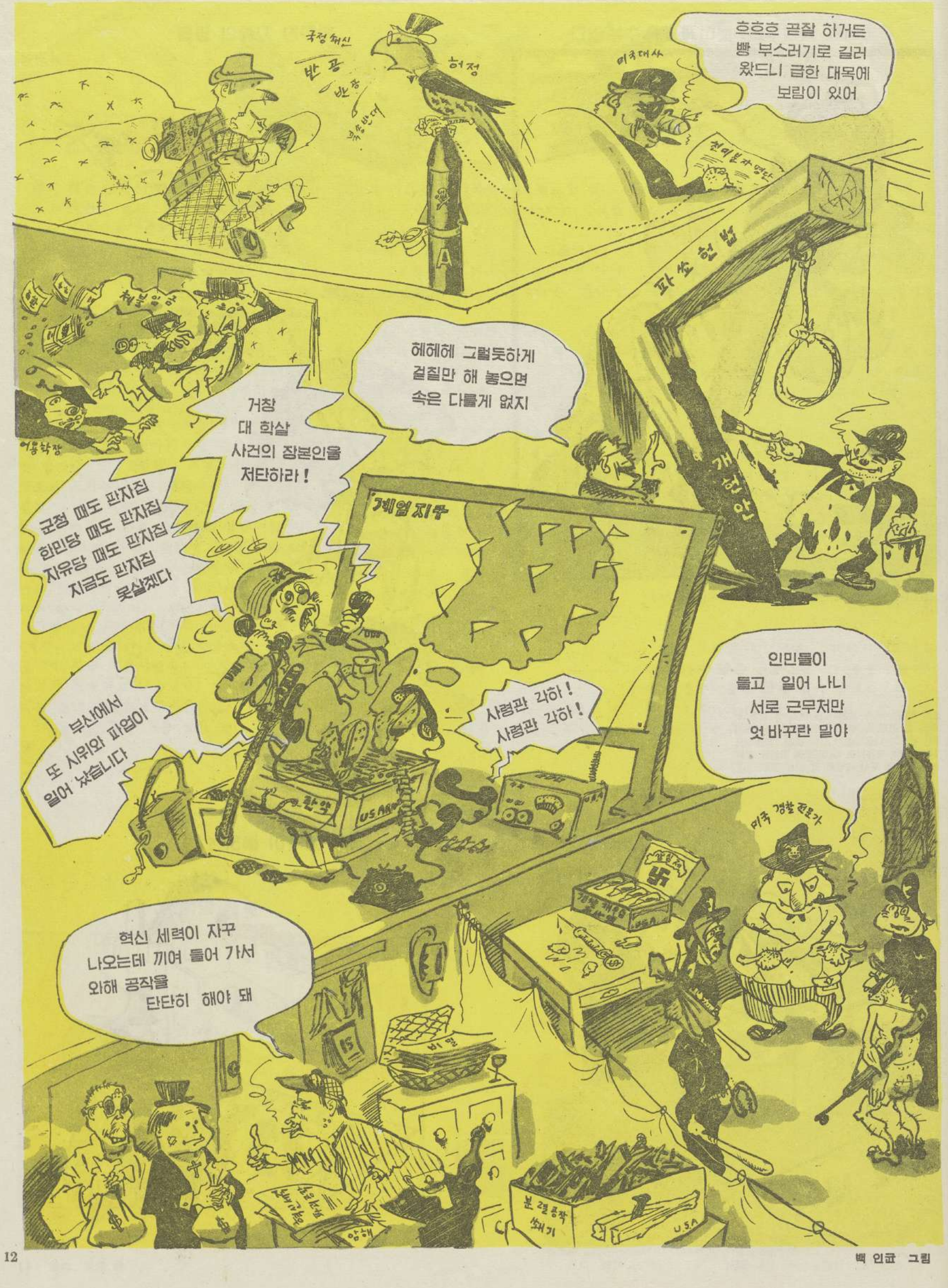
박 승히 그림

조선 인민이 한결 같이《썩은 국회》로 락인 찍고 물러 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바로 그 쓰레기통에서 무엇이 나오겠는가 하는 것은 처음부터 명백한 사실이 였거니와 《개헌안》의 정체는 혈행 리 승만 헌법을 복사 각색한 것 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송 시엽 그림

침략 계획이 통하는 길

홍 종호 그림



백 인균 그림

《국정 쇄신》

박 내순

서울 시민들의 쇠뭉치 같은 주먹 다시에 유리창이 날아나고 책상들이 오그라든 괴뢰들의 복마전—《중앙청》 한 모퉁이에서는 허정과 그의 졸개 몇몇이 모여 앉아 쑥덕공론을 하고 있었다.

—령감 백성들이 계속 들고 일어 나고 있어요. 부산에서는 학생—시민, 부두 로동자들이 련 사흘째 거리를 몰려 다니면서 계속 아우성을 치고 있소. 《자유를 달라》《판자집 신세를 면하자!…》 젠장 한국에 자유가 어딧서 (〈내무 장관〉)

—그자들이 리 승만 박사를 몰아 내더니만 우리까지 쫓아낼 모양이군(허 정)

—지난번에도 그러다가 터졌는데 계속 이 모양이니 또 무슨 변이 일어 나겠군(〈법무 장관〉)

—내각 책임제 개헌도 하고 뭣도 한다고 계속 들이 대야 겠소. 입은 좀 놀려야겠지만 밀질거야 있소? (허 정)

—그야 그렇죠 대통령 중심제건 내각 책임제건 뒤집건 재끼건 어차피 정권은 우리 손아귀에 있거든 흐흐 (〈내무 장관〉)

—공보 실장! 개혁을 하겠다고 자꾸 불어 (허 정)

—령감 선전만 가지고는 백성들이 속지 않아요. 내무부 처럼 손을 써야 해요. 일선 경찰은 후방과 바꾼다. 정치 사찰은 대공 사찰로 바꾼다. 경감은 소속 경찰서를 바꾼다. 경위는 전문 부서를 바꾼다. 경사와 순경은 근무지를 바꾼다… 이게 내무부의 국정 쇄신이거든 흐흐…백번 바꿔도 밀질거야 있나… 일선이고 후방이고 족치는 데야 매 일반이지 (〈내무 장관〉)

그때 새로 임명된 〈치안국장〉이 황급히 방안으로 들어 왔다.

—빠고다 공원 앞에서 로동자들이 또 들고 일어 났습니다. 수백명이 인민 수탈로 치부한 자들의 재산을 몰수하라고 웨치면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젠장 그것들이 우리 보구 하는 소리군! 사령부에 련락해서 군대를 발동시켜! 시위 대렬을 차 헤치고 주모자를 체포해! (허 정)

—야단 났군 탄압은 문제 없지만 여론이 또 시끄러워질 것 같소 (〈법무 장관〉)

—야단 날게 있나, 공산 5 렬이라고 딱지를 붙여서 몰면 돼, 문제 없소. 즉각 손을 쓰기요.

내무부 장관! 경찰에게 5 렬을 색출하면 한 급 승진에 상금 백만환을 주겠다고 그랬지? 됐어! 경찰을 안착시키고 지위와 돈으로 자극을 주면 리 승만 박사 치하에서 그들이 발휘하던 솜씨를 남김 없이 발휘할 게야 (허 정)

—흐흐…

방안에서는 정체 모를 너털 웃음이 터졌다.

그것은 괴뢰들의 검은 배'속을 들어 내는 징그러운 웃음이였다.

그러나 과연 그들이 언제까지 그런 웃음을 웃을 수 있을 것인가?

〈중앙청〉에서 그들의 너털 웃음이 터지는 바로 그 순간에도 밖에서는 항쟁의 물'결이 파도치고 있었다.

그것이 다시 한 번 거세게 출렁거리면 모든 것을 쓸어 버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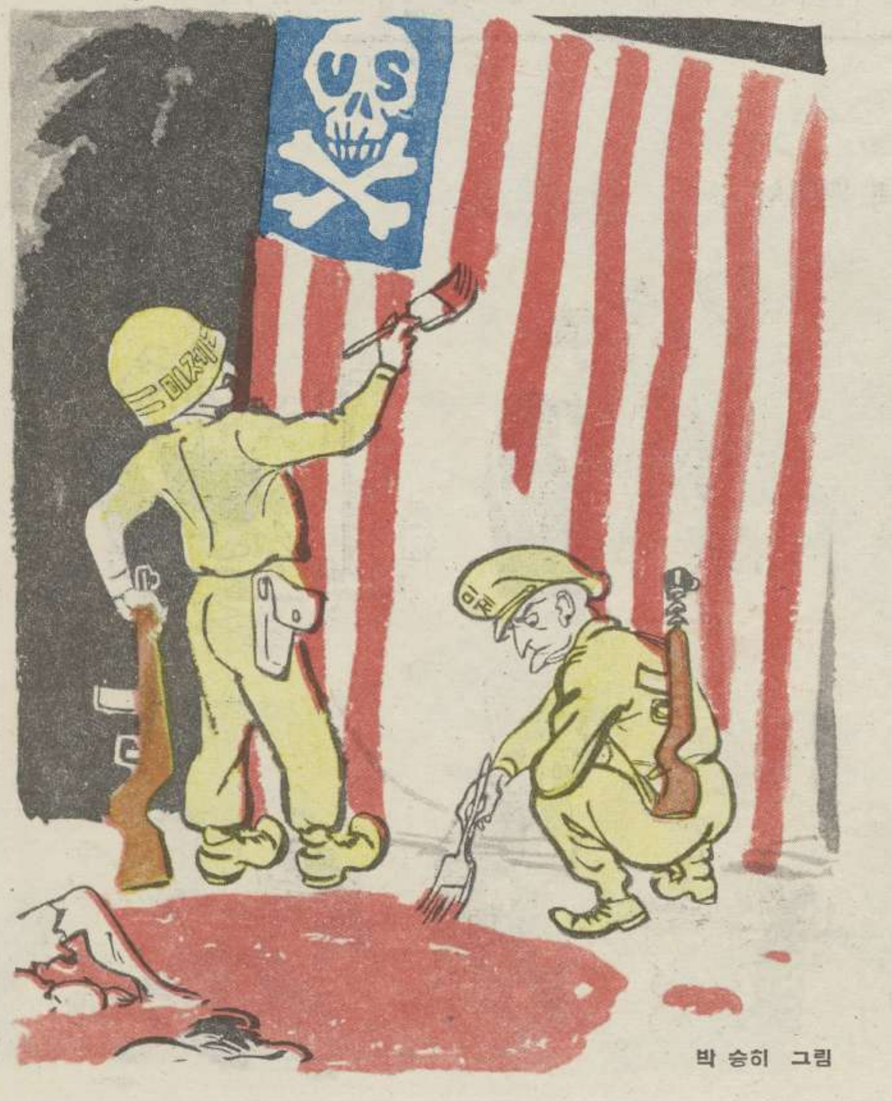
남녘 땅에서

송 시엽 그림

미 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강점하고 그 곳을 전대 미문의 경찰 국가로 인민의 감옥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은 미제와 그의 충복들이 제아무리 발악하여도 그 파쑈 통치를 지탱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홍 종호 그림

살인귀들의 기'발



박 승히 그림

동업자

로 철

아이젠하워—허터 일당이 파리에서 정부 수뇌자 회의를 파탄시키고 나서 세계 여론의 강력한 규탄을 피하노라고 불벼락 맞은 도적개처럼 창황히 제굴로 돌아 온 바로 그 날이 였다. 미국 신문들의 보도에 의하면 이 날 아이젠하워의 별장에 도적이 들었다 한다. 대통령의 집에 도적이 든다는 것은 후버 대통령 때에 한번 있었을 뿐 매우 드문 일이였던지라 아이젠하워는 하두 신기해서인지 현장에서 붙잡힌 그 도적을 직접 심문하게 되였다.

—이놈, 여기가 어덴줄 알고 도적을 들었느냐, 앙?

—붙잡힐 줄은 몰랐습니다, 각하.

—붙잡힐 줄은 몰랐다?

—각하께서 정부 수뇌자 회의에 가 있었길래 안심하고 있었지요… 게다가 호위 경관 녀석들은 모두 돈으로 입을 틀어 막아놓았겠다……에익, 참, 이게 다 당신의 그 공보 비서 녀석의 잘못인 줄 아뢥니다. 네.

—내 공보 비서? 아니 이놈아, 여기에 내 공보 비서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냐?

—글쎄, 그 녀석이 《우리 미국 정부 대표단은 정부 수뇌자 회의를 파탄시키려고 파리에 간다》고 단 한마디만 말해 주었던들 날을 다시 받아 가지고 댁을 찾아 와서 각하의 그 1천 8백만 딸라 짜리 보석 단지를 틀림 없이 내 손아귀에 넣었을텐데,…

—쉿! 왜 그리 큰 소리로 야단 법석이냐? 그건 이놈아 9백만 딸라 짜리 보석 밖에 들어 있지 않는데…

—각하 그건 엇 그제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쏘련의 군비 철폐안을 결사 반대 하기로 약정하고 록페러로부터 선물 받은 5백만 딸라 짜리하고, 동서방 교류를 방해하기로 하고 듀봉에게서 2백만 딸라치를 받은 것하고 그리고 로케트 군사 기지를 더 가지기로 한 대가로 메론이로부터 받은…

—이놈아! 그만 입을 닥치지 못할까! 남이 듣겠다. 이놈아!

아이젠하워는 진땀을 씻고 나서

—그건 그렇고, 이놈아, 넌 네 잘못을 아느냐? 남의 집을 불법 침입한 것은 미국 련방 형사법 제 32조에 의하여……

—제 잘못은 하나도 없을 줄 아뢥니다. 각하!

—무엇이?

—그건 우선 대통령 각하, 당신의 잘못으로 아뢥니다, 네.

—아니, 이놈아! 도적은 네가 하고 잘못은 내게 있단 말이냐?

—그건 우선 첫째로 각하께서 년 봉급이 400만 딸라로 미국에서 제일 많고 그 우에 뢰물 받은 것, 선물 받은 것, 그저 집에 온 것, 주권에서 리자를 얻어 낸 것 합하면 1년에 적어도 2천 7백만 딸라나 돈을 벌어 들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도적들을 잡아 이끄는 자석의 역할을 놀지 않을 수가 없고…

—자석?

—네, 다음 둘째로는 도적이 경관놈들에게 돈을 먹이고 담을 넘어 남의 집에 침입하는 것은, 말하자면 도적들의 기본 정책으로서 방법상 아주 당연하고 정당하며 세째로는……

—그만…, 네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니 그 론법이 몹시 낯에 익은데…

—헤헤…. 대통령 각하! 바로 지난 5월 11일, 파리에로 떠나시기 전에 각하께서……

—흐음…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 정탐 비행기가 쏘련을 침범한 것은 미국의 잘못이 아니라 비밀을 대 주지 않는 쏘련의 잘못이고…

—……?

—때문에 간첩 비행은 미국의 기본 정책으로서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호호… 그걸 배운 론법이란 말이지….

아이젠하워는 무엇이 만족한지 고개를 끄덕거리다가 이윽고 제 정신이 든 모양인지

—이놈! 그럼 이 도적놈아! 앞으로도 내 집에 도적하려 또 기여 들어 오겠단 말이냐?

하고 벼락 소리를 지르는데

—각하! 노하지 마십시오! 각하나 저나 비록 신분은 서로 다르지만 다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말하자면 동업자가 아닙니까?

찌또의 충성

송 용남 그림

송장을 살리려는 자들

서부 렬강의 호전 분자들은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한 《힘의 립장에 선》 정책이 이미 파탄되고 허물어졌다는 것을 인식 못하고 그 어떤 마술적인 주사로써 이 송장을 소생시켜 보려고 《랭전》의 정신으로 일관된 온갖 연설과 성명들과 공공연한 도발 행동들을 감행하고 있다.

박 승히 그림

편집 위원회

발행소 국립 미술 출판사 ㄱ—15554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발행 1960. 6. 10 (값 40전)

허용할 수 없다

미제는 일미 군사 동맹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일본 군국주의 도당을 우리 나라와 기타 사회주의 진영을 반대하는 침략 전쟁의 돌격대로 리용하려하고 있다. 이는 아세아의 모든 나라 인민들에게 새로운 위협이 되지 않을 수 없으며 이 지역 인민들의 격분을 자아내지 않을 수 없다.

최 영근 그림

8034

ЦЗК 8
ул. Чайковского
д. 19/21
американскому посольству
10 1-12 №8034